

藝·體能系 入試制度의 改善案

姜 信 福

(서울大 體育教育科)

I. 序 言

우리는 傳統的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매우 높다. 教育力은 개인의 伸張과 국가의 발전에 直結되어 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수한 人才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느냐에 따라 國力의 強弱이 좌우된다. 그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教育의 重要性을 그만큼 강조해 왔다.

우리보다 크게 앞선 외국 先進諸國들도 教育의 質을 더 높이고 效率化하자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재작년 미국 정부가 구성한 教育의 秀越性 委員會는 '國家危機'란 題目의 報告를 통해 教育의 重要性을 충격적인 표현으로 강조한 바 있다. "만일 당신이 나라를 염려한다면 우선 학교를 염려하라"고 권고한 이 보고서는 平凡性과 秀越性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만일 비우호적인 外勢가 미국으로 하여금 教育의 平凡性을 強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호히 教育의 秀越性을 부르짖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몇 주일 뒤에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실무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도 온통 '危急性', '緊迫性', '國家存亡의 危機', '법

세계적 競爭' 등 극단적인 어휘를 써 가며 教育의 '秀越性'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관계 당국에서 이와 같은 教育의 秀越性 追求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다. 그 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는 1980년 7월 30일 공포한 教育正常化를 위한 教育改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7·30 教育改革'에 따라 '81학년도부터 실시하여 '85학년도로 5년째에 이른 大入制度를 고수하면서 관계 행정당국은 해마다 補充·改善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많은 解決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藝·體能系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강조되어 왔다. 예·체능계의 입시제도는 문교부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의 기본 골격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藝·體能分野는 일반 교과와 특성과 크게 다르다. 藝·體能은 活動敎科이므로 퍼포먼스(performance)를 중요시한다. 퍼포먼스는 창의력, 표현력, 태도, 그리고 運動技能의 수준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특히 운동경기는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예로서 운동 경기력의 평가는 일반 주지교과 평가와 크게 다르며 또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藝·體能 분야에 있어서의 評價 문제는 대학

입시 도입 이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행정당국과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와 관련지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藝·體能系 특히 體育系를 중심으로 하여 入試制度和 관련시켜 現況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入試制度改善을 위한 方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II. 現行 入試制度的 問題點

1. 學力考查의 教科目과 配點調整의 문제

現行 大入制度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大入 부담을 덜자고 했던 7·30 改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로써 과의와 본고사를 없앤 것은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지만 시험 과목이 점차 늘고 있어 초기 改革의 趣旨와는 어긋나고 있다.

현 學力考查制의 모순점 중의 하나는 內申성적과 학력고사라는 大學入試의 重複構造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高校의 進科目·進課程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二重의 부담을 주게 한다. 內申은 고교에서의 學業成就度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進 과목·進 과정을 대상삼는 것이 당연하나 학력고사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 內申으로 學業成就度를 가늠하고, 學力考查로 大學進學 適性을 판정한다고 하면, 학력고사는 기초 素養科目과 대학 학습의 道具科目만 시험치도록 하고 進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高校 教育課程에서 必須科目으로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學力考查科目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體育, 美術, 音樂教科와의 衡平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學力考查科目을 대폭 축소할 경우 청소년들이 體育活動과 藝術活動 참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身體的·情緒的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文敎部는 올해부터 작년까지의 高校 教育課程이 바뀐에 따라 '87학년도 大入學力考查부터 改編된 教科內容을 반영하기로 하는 方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教育課程은 人文社會, 自然, 藝·體能 및 기타 系列 등 3系列의 교과목이 과목별로 단위

시간수가 다르다. 또한 사회 및 과학과목도 教科內容의 深度가 자기 다르게 I, II로 나뉘어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出題한 경우 高校의 系列別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계열별로 점수 配點과 試驗施行 방법 등을 다르게 하는 方案摸索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一般系와 藝·體能系 高校 졸업생을 동일시하여 學力考查 教科目과 點數配點을 같게 처리해 온 기존의 學力考查制度는 補充·改善되어야 한다.

2. 高校教育 正常化의 문제

教育의 目標은 知·德·體를 三位一體로 하는 수업을 통해 健全하고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런데도 현 우리의 學校教育에서 藝·體能教育은 증발해 버린 지 오래다. 고교 體育教育의 경우 스타들이 떠는 인기 경기만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체육교육의 비정상화 현상은 大入制度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좁은 운동장은 학교 代表選手들의 전유물이어서 정규 수업 시간마저도 선수들 연습장으로 양보해야 한다. 체육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8~9학년이 동시에 몰려 나와 복적 거리는 놀이장의 현상을 빚고 있다. 한 시간 내 공 몇 번 만져 보지도 못하고 한번 힘껏 뛰 어 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1~2학년 때인 體育時間은 시간표에만 짜여져 있고 실제로는 大入 준비를 위한 다른 주지교과 시간으로 代替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3학년에 오르거나 체육시간에 부랴부랴 달리기, 턱걸이, 제자리 멀리뛰기,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등 체력장 검사 종목의 연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행 中·高校 體育은 각 領域別로 균형적으로 짜여진 教育의 課程으로 주당 2~3시간씩 편성하여 여러 운동을 골고루 이수토록 하고 있지 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행 大入制度 導入의 기본 趣旨 중의 하나인 高校教育의 正常化 推進 노력에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3. 補充修業과 自律學習의 문제

文敎部는 '84년 새학기부터 週 5시간 이내의 補充修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變則運營하여 中·高校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自習도록 誘導하고 있다. 한창 發育·發達 단계에 있는 청소년·소녀 학생들에게 運動의 기회가 박탈되어 성장이 순조롭지 못하고 學業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기회가 없어 정신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을 惹起하고 있다.

주지교과는 방과 후 귀가하여 독자 학습에 의한 방법으로 공부 가능하지만 體育活動은 活動空間과 時間的 여건이 맞는 방과 후나 여가 시간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正課 體育時間에 터득된 學習內容에 대한 練習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아울러 體育學習 평가에 대비한 준비도 할 수 있어 體育學習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體育이나 藝術活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補充修業이나 自律學習 시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自律學習制度 도입은 본래의 導入趣旨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高校敎育의 正常化와 大入制度 改善의 측면에서 이를 是正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4. 大入 體力章制度의 문제

體力章制度는 학생의 體力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高等學校, 대학 入學時에 그 成績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大入 體力章檢査는 학력고사 340점 만점 중 20점 만점으로 100m 달리기 등 6개 種目에서 실시된다.

최근 2년간의 全國 大入 體力檢査의 成績分佈는

<표 1> '84, '85學年度 全國 大入 體力檢査 成績分佈

연도	점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남	'85년 80.2%	5.0%	2.9%	1.8%
	'84년 79.7%	5.0%	3.0%	2.0%	3.3%	
여	'85년 88.9%	3.4%	1.8%	0.9%	1.0%	
	'84년 88.4%	3.3%	1.9%	1.1%	0.9%	

註: 동아일보, 1984. 10. 25.

좌측 표와 같다.

좌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학년도 大入 體力檢査에서 남학생은 80% 이상, 여학생은 거의 90% 정도가 滿點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體力檢査의 滿點者가 많아지자 敎育계에서는 ① 만점 비율이 너무 높고, ② 지원만 해 놓고 응시를 하지 않아도 15점, 참여만 하면 16점을 주기 때문에 최대 點數 격차가 4~5점밖에 안돼 選別度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高校의 體育敎育 正常化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體力檢査를 폐지하거나 選別度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學力考査 成績이 같은 수준이라도 여학생의 내신 등급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아 體力檢査에서도 남학생이 불리한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현행 體力測定의 타당도와 신뢰도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행 體力章制度는 본래의 趣旨처럼 학생 體力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운영상의 문제도 많아 그 改善方案 모색이 필요하다.

5. 特技者 制度의 문제

體育 特技者制度는 競技力이 뛰어난 우수선수에게 대학 進學의 혜택을 주어 競技活動에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特技者 진형을 위한 지방생은 소정의 증빙서류(예를 들자면 경기실적 등)를 출신 學校長을 경유하여 文敎部에 제출한다. 所管部處는 特技者 자격 여부를 심의한 후 이를 결정하게 된다.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特技者의 해당 종목과 모집 비율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大 體育敎育科에서는 특기자를 전혀 모집하지 않는 반면, 韓國體大에서는 모집 정원 90% 이상을 특기자로 채우고 있어 對照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서는 그 모집 비율이 서로 다르지만 30~50% 정도씩 체육 特技生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모집 비율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기자에 대한 진학 혜택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첫째, 運動選手로서의 본연의 목표와는 달리 대학 進學만을 목적으로 하여 特技生 대열에 끼어드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特技者 選拔 과정에서 어느 팀의 스타 선수가 입학하게 될 경우 그 선수가 소속해 있던 팀의 선수 대부분과 후보선수가 함께 特技者로 '문어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의 선수 指導·管理를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를 억제하기 위한 制度的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팀수가 아주 적은 競技種目에 출전했을 때와 팀수가 많은 경기 종목에 출전하여 모두 上位 入賞을 하였을 때 두 팀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불공평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특기자를 지도·관리하는 行政部處 및 관련기관의 기능 처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대학에 特技生 制度가 도입된 이후 학생의 質的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상 열거한 여러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特技者 制度에 대한 評價와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6. 評價方法의 문제

藝·體能 系列의 大學入試는 學力考查 성적, 丙申成績, 實技考查 성적을 모두 합하여 입학 사정을 하게 된다.

丙申成績은 학교의 성적을 의미하는데 藝·體能 敎科의 學習評價는 일반 주지교과와 달리 객관성이 결여되고 主觀性이 많이 관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藝·體能 敎科의 특수성 때문에 客觀化에 의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큰 애로이다. 음악, 미술, 무용 등은 表現力을 증시하는 藝術活動이므로 일반적으로 퍼포먼스를 評價者의 주관적이며 예리한 관찰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복잡다단한 경기력의 퍼포먼스도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평가자의 個人差, 評價時의 상황 여건의 변동 등과 같은 여러 要因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信賴性이 낮다는 것을 인정 않을 수 없다.

文敎部와 學界에서는 이와 같이 주관적 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藝·體能 敎科의 學習評價를 보다 客觀性 있게 평가하기 위한 道具開發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였다. 文敎部에서 작년 일선 각급학교에 시달한 藝·體能 과목에 대한 3단계 評價指針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學界에서는 藝·體能 敎科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評價方法 開發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效率的인 새 아이디어 개발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현장 中等學校의 指導敎師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평가 문제에 관심을 쏟고 여러 방법을 開發·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4학년 봄학기부터 서울 시내에서만도 192개 高校 가운데 28개 교가 남·녀 공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녀 공학 시대에 대비하여 體育 學習評價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丙申成績 반영을 위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녀간에는 性的 차이가 때문에 運動機能과 體力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운동에 대한 흥미와 요구도 달라 運動學習 評價時에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藝·體能 계열의 大學入試 방법에서 일반계열과 다른 점은 實技考查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 실기고사는 대학의 本考查에 準하는 評價로서 비교적 대학의 自律性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높다.

實技考查의 種目, 방법 및 운영 절차는 각 대학마다 다르다. 高校 體育敎育의 正常化를 위해 대부분의 實技種目을 시험과목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한두 종목만으로 대표하여 시험을 치루도록 하기도 한다. 이것은 대학의 特性(예를 들자면 師範系, 非師範系 등)에 따라 그 철학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實技考查 評價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많

다고 생각된다. 즉 각 種目마다 실기평정의 준거 설정의 문제, 전문 경기력의 새로운 評價方法 開發 등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이다.

Ⅲ. 改善方案

지금까지 논의된 藝·體能系 大學入試 運營상의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그 改善方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入制度의 개선 방향은 內申과 學力考查의 성격을 분화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즉 內申成績은 평소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學力考查는 大學學習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수 道具科目만 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교교육은 情緒教育과 같은 全人的인 人間教育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둘째, 藝·體能 教科의 大入制度 개선은 高校 藝·體能教育의 正常化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 藝·體能教育이 정상적으로 內實化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主知教科目 중심에 의한 變則的 教育課程 운영을 지양하여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藝·體能 교과목은 균형 있게 履修되어야 한다.

세째, 현행 고교의 補充授業과 自律學習 시간의 上限線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여 학생들의 餘暇時間의 양을 늘려야 한다. 증가되는 여가 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課外自律體育活動(Intramural sports)이나 예술활동 또는 기타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特別活動時間化하여야 한다.

네째, 실시에 문제점이 많고 妥當度와 信賴度가 낮은 현행 '體力章制' 대신 '學生體力檢査制'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學生體力檢査制는 기존의 대학입시 內申을 위한 體力章의 기능을 살리면서 방법만 달리하는 것이다. 즉 고교 3년 동안의 在學期間에 週期的으로 측정된 體力成績을 평균하여 이를 體力値로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고교 優秀選手에게 대학 입학의 特惠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運動선수의 特技者制度는 대폭적으로 정비·보완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 및 主務行政官廳에서는 特技者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대학에서 특기자 募集

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運動潛在力이 우수한 일반 학생에게 입학의 門戶를 더 넓혀야 한다.

여섯째, 藝·體能 教科教育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제도의 內申制를 더욱 강화·운영하여야 한다. 內申制 運營의 關鍵인 學習評價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다양한 評價方法의 개발·도입이 요구된다.

藝·體能 教科의 특성상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評價方法이 모두 동원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가 방법과 模型開發을 서둘러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학교마다 成績管理委員會를 설치하여 藝·體能 교육의 평가·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각 학교 評價管理委員會에서는 대학의 體育研究所 또는 關係 專門研究機關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評價方法 개선을 위한 정보 교환이 원활하여야 한다.

藝·體能系의 대학 입학 實技考查의 평가는 3~5명으로 구성하는 複數制 審査方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入試制度는 어디까지나 학생 선발과정에서 기회 均等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공정성 있게 처리되어야만 한다. 學力考查 점수를 받아들이고 그 점수에 따라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非教育的 폐단으로 인해 대학의 序列과 隔差가 制度化될 뿐 아니라 개인의 適性 존중과도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 특히 藝·體能系는 先志願·後試驗으로 순서를 바꿀 경우 이런 폐단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여덟째, 高校 학생을 위한 藝·體能系 학과의 입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한다. 학과의 특성, 學點履修, 卒業 후의 進路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科選擇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適性を 무시하고 무작정 應試하여 입학해 놓고 보자는 식의 應試 학생을 자기에 맞는 분야로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홉째, 현행 體力章 위주 體育 수업을 지양하여 정상적인 教育課程에 의한 授業體制로 전환·운영하여야 한다. 대학 입시에는 고등학교

전 學年의 體育成績을 반영토록 한다. 또한 課外自律體育活動을 활성화하기 위해 課外自律體育活動의 참여도를 點數化하여 체육 성적에 반영토록 함도 바람직할 것이다.

IV. 結 論

藝·體能 敎科의 대학 입시제도는 현행 입시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야 한다.

현행 대입제도는 고교교육 正常化를 기하고 과열된 課外공부를 근절하며 학교교육을 全人敎育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행된 것인 만큼 현행 제도는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대입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대학의 自律性이 너무 배제된 획일성을 들 수 있지만 藝·體能系의 입시는 實技考查를 부과하고 있어 이 실기고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대학 自律性의 문제는 비교적 보장될 수 있

다고 본다.

일반 계열과 달리 藝·體能 敎科의 특성 때문에 學習評價와 학생선발 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藝·體能의 학습평가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거국적인 노력과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칭 藝·體能系 大入制度改善委員會와 같은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을 두어 衆智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文敎部는 산하 어느 특정 연구기관에 藝·體能系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관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의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敎育政策을 수립할 때 각계 각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하게 될 「中央敎育協議會」의 기능을 확대하여 藝·體能 敎科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 업무를 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